

구로구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대상' 최우수상

구 전역 와이파이·자가통신망-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안전·교통·환경·복지 '스마트 정책' 호평

디지털도시 구로, 스마트도시로 거듭나다!

구로구가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스마트시티 대상'은 '지식혁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우수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매일경제신문사·MBN이 주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후원했다.

응모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1차 서류심사, 온라인 발표 심사를 거쳐 구로구 등 7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지난 15일 서울클럽에서 진행됐다.

구로구는 구 전역에 무료 와이

파이존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 자가통신망을 설치하고 구의 각종 사업을 통합운영센터에 실시간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탄탄한 스마트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조성에 앞장서 왔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교통·환경·복지 분야에서 추진한 스마트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분야는 노후·위험시설물 붕괴 위험을 사전 예측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시설물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긴급상황 발생 시 선제적·능동적 대처를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교통분야는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골목길 보행안전도우미', '구로형 스마트폴' 설치, 환경분야는 IoT 기반 초미세먼지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 구로 스마트팜 센터 조성, 복지분야는 홀몸 어르신, 어린이집, 특수학교 안심 케어서비스 및 어르신,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토이 로봇 보급 등이 우수사업으로 꼽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구로형 스마트 사업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6월 시설물 붕괴 위험을 예측하는 IoT 기반 위험시설물 예·경보시스템



구로구가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스마트시티 대상'은 지식혁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우수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사진은 이성 구청장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수정책으로 선정돼 '참좋은 지자체 정책대회' 협의회장상을 수상했으며, 9월 초에는 국토부 주관 '스마트도시 인증제'에서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 받았다.

김수한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

트도시 조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구로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대한민국 명품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2021년 '구로G페스티벌' 취소

구로구 최대 대표축제인 '구로G페스티벌'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구는 구민에 대한 안전과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2021 구로G페스티벌'을 취소한다고 9월 23일 발표했다.

구로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전파력이 강력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등의 심각성을 고려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로G페스티벌은 안양천을 메인무대로 2003년부터 매년 10월경 열리는 구로구의 대표축제다. 구로디지털단지 직장인들이 참여하는 넥타이마라톤대회, 어르신들의 장기와 건강을 뽐내는 건강노익장대회, 구민상시상식, 각 동별 주민

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수준높은 아시아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아시아문화한마당 등 구로를 대표하는 구민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한편 지난해에는 비대면 사전 녹화로 구로G페스티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영상을 송출형식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급증에 따른 심각성을 고려해 취소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구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축제들을 준비해 왔지만 안전을 위해 취소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더 색다르고 알찬 축제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구로구가 9월 재산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 대상은 올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한 자로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30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 ▲고지서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신한페이관,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으로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로구는 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소식지 등을 통해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756~2763, 2778~2786.




코로나 일상에 희망 더하기

회복의 희망
도약의 희망
함께 잘 살아갈 희망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일상에
희망을 더합니다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 수상작 발표 구로구 '간판개선지역 우수구' 선정

서울시가 '좋은간판 공모전'에서 19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시는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매년 시민과 함께하는 '좋은간판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된 공모엔 △좋은간판 △창작간판 △간판개선지역 3개 분야에서 총 38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시는 네 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성 있고 창의성이 뛰어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좋은간판 11점(대상 1·최우수상 2·우수상 3·특별상 5), 창작간판 6점(대상 1·최우수상 2·우수상 3), 간판개선지역 2점(우수자치구 2)이다. 이 중 서울시장상은 14점(좋은간판부문 6점, 창작간판부문 6점, 간판개선지역부



간판개선지역 우수사례를 받은 고척동 설송빌딩. 기존의 노후화된 대형간판과 창문이용간판을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간결한 간판을 설치해 주변경관과의 조화성을 높인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문 2점)이며, 서울옥외광고협회장은 5점(좋은간판부문 5점)이다. 좋은간판 분야 대상은 '오늘의 계절'이, 창작간판 분야 대상은

'북카페 이음'이, 간판개선지역 우수자치구는 '구로구청'과 '서초구청'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간판개선지역 우수사례를 받은 '구로구 중앙로9(고척동) 설송빌딩'은 기존의 노후화된 대형간판과 창문이용간판을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간결한 간판을 설치해 가시성을 높이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성을 높인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수상작은 추후 서울시 간판개선사업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이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각종 간판 디자인 및 교육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30주년 기념 구로미술전' 참석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5시 구로구민회관 1층 구루지에서 열린 '제30회 구로미술전'에 참석,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27일 구로구민회관 1층 구루지에서 열린 '제30회 구로미술전'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로문화원과 구로미술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구로미술전 30주년 특별 기념전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구로미술협회 회원 및 우수회원의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등 50여 점을 전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엄중함을 고려해, 구로문화원장, 지역 문화예술단체 협회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토록 했으며 행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정식 개막식 없이 약식으로 진행됐다.

박 의장은 전시된 작품을 둘러본 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좋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미술협회 회원분들

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활동의 현황 등을 청취하고, 구로구 지역예술인의 어려움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동웅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구로미술협회는 매년 구로구 동호인들이 창작 예술작품 활동을 위해 미술전을 개최하고 구민들에게 작품을 전시하며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구로구의회는 구로미술협회를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더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선관위 "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첨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구로구선관위는 각 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반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로구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구로구선관위(02-3281-1390) 및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유권 기자〉

서울시의회 11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제보 받는다

10월20일까지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오는 11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20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

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되며, 행정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

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 사항,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보다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보기간을 기존 30일에서 50일(9월 1일~10월 20일)로 연장하여 실시한다.

〈한만수 기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

10월1일 접수 마감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0월31일로 3년 임기가 끝나는 유영환 현 이사장의 후임자를 공개 모집한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이사장 모집 공고에 따르면 접수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1일까지이며, 접수는 공단 방문 또는 등기우편(우편은 접수마감일 오후6시 도착분에 한함)으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임원후보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 계획서 등이며 서류합격자에 한해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1차 시험(서류심사)은 10월6일,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0월 7일이며 2차 시험(면접 심사)은 10월 12일이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보수는 임명권자(구청장)와의 계약에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2-850-0905)로 문의하면 된다. 〈채홍길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주간: 한만수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발행인: 김유권 편집국장: 채홍길 등번호: 서울 다-5105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구독료: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02)830-09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자랑스런 여러분들이 있어 구로가 행복합니다”

제31회 ‘구로구민상’ 봉사 등 8개부문 13명 수상자 선정

10월 5일 오후 2시 구청 3층 창의홀서 시상 예정



구로구는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모범 구민을 발굴, 포상해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위해 매년 구민상 대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제30회 구로구민상 시상식>

2021년 제31회 구로구민상 수상자가 8개 부문 13명이 결정됐다.

구로구는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모범 구민을 발굴, 포상해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위해 매년 구민상 대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구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봉사, 문화예술, 교육, 생활체육, 지역사회발전, 안전, 경제 발전, 환경 등 8개 부문을 대상으로 구민상 대상자를 공모, 총 32명을 접수 받아 9월 8일 구로구민상 공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계명 구로문화원장) 위원 11명이 8개 부문에서 13명(봉사 5명, 지역사회발전 2명, 나머지는 부문별 1명씩 선정)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효행부문은 대상자가 없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구청 3층 창의홀에서 수상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일정 변동 가능)

수상자는 ▲봉사부문 김경진(64세·구로4동)씨, 김미경(55세·오류2동)씨, 김혜자(71세·구로3동)씨, 변택우(69세·개봉1동)씨, 한병성(68세·구로3동)씨 등 5명 ▲문화예술부문 제해석(72·구로1동)씨 ▲교육부문 김서규(59·구로5동)씨 ▲생활체육부문 김홍수(63세·구로3동)씨 ▲지역사회발전부문 김순자(67·오류2동)씨, 이지영(65세·고척1동)씨 2명 ▲안전부문 길지원(41·구로2동)씨 ▲경제발전부문 강인덕(67·구로2동)씨 ▲환경부문 변분선(67·오류1동)씨다.

주요 공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봉사부문

- 김경진 (64세) 구로4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한중다문화봉사회·경로당 고문 및 한국범죄피해운동본부 글로벌위원회 회장, 실천도국제연맹 글로벌범죄예방 위원회 중앙본부 감사 등 다방면에서 봉사활동을 벌여 구 발전에 기여했다.
- 김미경 (여 55세) 구로구 새마을부녀회 회장, 여성단체연합회 부회장으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



김경진씨



김미경씨



김혜자씨



변택우씨



한병성씨



제해석씨



김서규씨



김홍수씨



김순자씨



이지영씨



길지원씨



강인덕씨



변분선씨

활동과 주부방역단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도·농간 지역교류 활성화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 김혜자 (여 71세) 직업자봉사회장을 역임 하면서 희망풍차 결연대상 지원, 직업자회비 모금 앞장, 에너지 취약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그리고 헌혈 및 나눔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앞장섰다.
- 변택우 (69세) 개봉1동 주민자치회 환경분과장, 방역단

당 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실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 했다.

- 한병성 (68세) 서울남부지역 법사랑 장학재단 이사, 구로구 장학회 이사, 구로상공회 부회장으로 청년·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에 장학금 후원, 프로그램 지원, 각종 기부행사에 적극 참여로 공공이익 산출에 기여했다.

문화예술 부문

- 제해석 (72세) 구로구의 대표 문화공간인 갤러리 구루지 조성에 기여 했으며 21세기 종합예술 구로캘리그래피협회를 창립하여 문화예술 강

좌에 뜻있는 분들의 열린공간을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다.

교육 부문

- 김서규 (59세) 구로구장학회와 신도림동 초등학교, 금강 학교 등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중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꾸준히 지원하여 공동체를 위한 나눔 실천 활동과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했다.

생활체육 부문

- 강홍수 (63세) 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 이사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물품과 장학금 지원으로 초중고 엘리트 선수 육성에 기여 했으며, 생활체육동호회 운영을 지원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지역사회발전 부문

- 김순자 (여 67세) 오류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민주평통 자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특화프로그램 개설, 자치회관 별관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 자치 분과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했다.
- 이지영 (65세) 고척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9~10기)으로 동 마을축제를 최초로 기획하여 낙후된 동네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안전 부문

- 길지원 (여 41세) 녹색어머니회, 학교안전지원단 구로녹색어머니회 회장으로 학교 앞 교통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골목길 사각지대 안전시스템 개발과 설치사업을 진행 중으로 구 안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발전 부문

- 강인덕 (67세) 산업용재용품 2,100여개 업체로 형성된 서울구로공구기계공구산업단지 조합장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에 적극 동참, 구로구를 대표하는 '경제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조합원 매출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환경 부문

- 변분선 (여 67세) 주부환경구로구연합회 회장으로 안양천 살리기운동 및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폐식용류를 활용한 재생 만들기, 녹색장터 활성화를 위한 수제 나눔 바자회 등) 추진으로 녹색생활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나눔으로 가득찬 '구로 한가위 보름달'

떡·과일·곡류 등 선물세트부터 칫솔치약 등 생활용품까지

구로구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했다.

구는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식품나눔 행사를 펼쳤다.

6~17일 2주간 동주민센터 또는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에서 라면, 쌀, 통조림 등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이나 칫솔·치약, 휴지, 세제 등 생활용품을 후원받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배부했다. 지난 13~15일에는 드립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186가구에 곡류와 과일 등 햇농산물꾸러미를, 14일에는 오류마을, 예델마을, e-좋은만남, 행복한집, 공동그룹홈, 노스토크의집 등에 사과를, 가정위탁 21가구에 햇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동별로도 푸짐한 나눔이 이어졌다. 개봉2동에서 지난 14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만철)가 저소득층 50가구에 명절음식을, 동자원봉사캠프(단장 강명철)은 저소득층과 홀몸어르신 30가구에 이불을 전달했다.

고척2동 새마을금고(이사장 석용식)는 13일 홀몸어르신 50가구를 위해 참기름세트를, 10일 고척2동 새마을작은도서관에 책 157권을 기부했다.

구로1동에서 16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정자)가 저소득 및 홀몸어르신 50가구를 대상으로 송편을, 15일 동자원봉사캠프(캠프장 임경화)가 저소득 어르신 15가구를 대상으로 양념갈비를, 14일 동적십자봉사회(회장 최



구로구는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식품나눔 행사를 펼쳤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구청장, 구로희망복지재단 조윤장 이사장>

현숙)가 저소득층 30가구를 대상으로 반찬을, 11일 동자원봉사협력단(단장 최형규)이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김치와 생활용품을 지원했다.

7일에는 구로3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박성희)가 저소득가정 아동과 청소년 10명을 위해 햇반, 스펀 등의 식품꾸러미를 전달했다.

구로5동은 14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동광교회(담임목사 염병철)가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 10매를, 주민이 참치, 햄, 김 등의 선물세트 20개를, 7일에는 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만철)가 구로구보건소 종사자들을 위해 컵라면 25박스를, 지난달 31일에는 통장협의회(회장 권순자)가 엠마오의집에 라면 10박스를 후원했다.

16일 오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인태)는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35가구에 떡, 김, 과일 등 식품꾸러미를 전달했다.

신도림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서춘희)가 도야미리(대표 최홍창), 뚜레쥬르 신도림태영점(대표

고용길)의 후원 받아 14일 홀몸어르신 10가구를 대상으로 빵, 밀반찬 등을 지원했다.

14일에는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이 장애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청소년 126명을 위해 도시락을 기부했다. 15일 (사)함께하는 사랑밭(대표 김병노)이 저소득가구를 위해 백미(4kg) 500포와 스펀, 참치, 식용유 등의 식품 선물세트 300개를, 14일 애경산업(주)(대표 채동석, 임재영)와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이 손소독제, 칫솔·치약, 삼푸·린스, 주방세제 등 50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13일 티뷰크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이선옥)이 김치(5kg) 2400박스를, 10일 구로구나눔네트워킹가 유과, 약과, 식혜, 누룽지 등의 추석맞이 선물 꾸러미 500개를, 7일 (주)글로벌금융판매(대표 김민규, 김종선, 이건)가 스펀, 식용유, 참기름 등 선물세트 400개를, 지난달 19일 진성트랜지(대표 전운표)가 300만원을 후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새마을지도자협의회, 소외계층에 생필품 전달

새마을지도자구로구협의회(회장 정태충)와 구로구새마을부녀회(회장 김미경)는 공동 주관으로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14일 관내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독거어르신 등)을 위한 이웃돕기 희망나눔 온정의 꾸러미 나누기사업을 벌였다. <사진>



구로구새마을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해 정성으로 생활필수품을 구매, 포장하여 구로구 관내 16개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했다. 구로구 16개동중 14개동은 각 23개의 온정의 꾸러미 박스를 전달했으며, 2개동은 각 19개의 온정의 꾸러미 박스를 360가정에 전달했다. <박순옥 신도림동 시민기자>

공동종합사회복지관 '추석 명절 이벤트' 진행

영상·떡담·추억·특식·김치나눔 등 5가지 테마로

공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신화)은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15일 지역 내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명절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영상·떡담·추억·특식·김치나눔 5가지 테마로 진행되었고, 각각의 이벤트를 통해 이웃 간에 추석인사를 나누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체조, 레토르트 식품을 활용한 조리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하여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더불어 행사 당일 떡담·추억 나눔 테마 △추억사진 남기기 △떡담 주사위 던지기 등 이벤트를 통해 참가한 지역 주민들이 덕담을 건네고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행사 후인 기관으로 (주)하이트진로는 추석맞이 송편 80kg과 티뷰크사회복지재단은 구로구에 김치 5KG 2,400박스를 후원하여 어르신들 추석특식과 함께 전달됐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와 코레일은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과 마스크를 후원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김유권 기자>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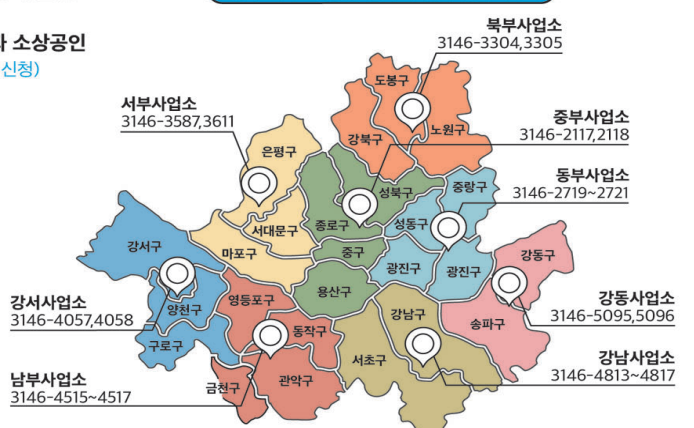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감면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m³ 이하 사용수전
※ 감면제외 : 가정용, 공공용, 임시급수
- 감면금액** - '21. 7월 ~ 12월납기 수도사용량의 50%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자동감면 대상** - '20. 6월 ~ '21.5월납기(1년) 월평균 사용량 300m³ 이하 수전
- '21. 6월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사용량 300m³ 이하 수전
※ 대상확인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 '21.6.21.부터 (고지서 감면내역 "소상공인 감면" 표기)
- 감면신청 대상** - 300m³('20.6월~'21.5월납기 월평균 사용량)초과 사용 일반·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1.6월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 사용량 300m³ 초과 소상공인
※ 1회 신청으로 '21.12월납기까지 적용 (단, 점포폐업 등 변경사항 발생시 재신청)
- 기간** - '21.7.1 ~ '22.3.31 (기간내 1회 신청으로 6개월 감면)
※ '22.4.1. 이후에는 감면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자격**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 (사업장 개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방법**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
-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 또는 방문
- 서류** -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 부과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
※ 신청서 등은 홈페이지 및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출력 가능

사업소별 소상공인 문의 및 신청 연락처



MG새마을금고 구로·금천구 이사장협, 코로나 근무 종사자 격려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방문 ... 쿠키·샌드위치 등 전달

MG새마을금고 구로·금천구 이사장협의회(회장 김석규)가 장기간 코로나 19 대응으로 지친 근무 종사자들을 위해 격려물품을 전달하는 등 위문에 나섰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격려품 전달식은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애쓰는 근무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16개 지점에서 뜻을 모아 준비했다.

16일에는 구로보건소, 구로역, 오류동역, 구로리공원 등 4개 선별진료소에 쿠키 100세트, 구민회관과 오류문화센터에 운영 중인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 샌드위치 150개를 전했다. 17일에는 구로보건소 코로나19 대책반과 역학조사반 근무 종사자에게 샌드위치 100개를 전달했다.



MG새마을금고 구로·금천구 이사장협의회 김석규 회장 등 회원들이 지난 16일, 17일 구민회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등을 방문, 장기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근무 종사자들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MG새마을금고 구로·금천구 이사장협의회 김석규 회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는 코로나19 근무자들과 함께 응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친 근무 종사자들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유권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19세기 초반 무렵의 문집인 <추재집>에는 정월 대보름에 솔잎으로 찐 송편을 놓고 차례를 지낸다는 글이 있고 <동국세시기>와 같은 무렵의 풍속서로 주로 한양의 풍속을 적은 <열양세시기>에서도 2월 초하룻날 떡을 만드는데 콩으로 소를 넣고 솔잎을 곱 곱이 쌓아 시루에 찐 후 농사일을 준비하는 노비에게 먹인다고

을 봄에 먹는 떡이라고 했다. 봄 떡으로 쑥떡, 느티떡, 진달래화전과 함께 송편을 먹는다고 했지만 추석이 낀 가을에 송편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없다. 영조 때의 문인 이의현은 세

송편의 유래 ㉞

했다. 요즘에는 특별한 날 먹는 송편을 그 시절에는 노비들을 위해 만들었다. 양반들이 볼 때는 천한 음식인 것이다. 추석 때 송편을 빚는다고 한 <동국세시기>에도 2월 초하룻날 빚는 송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광해군 때 팔도 음식을 기록한 허균의 <도문대작>에서는 송편

시 음식으로 정월에는 떡국, 대보름에는 약식을 먹으며 강남간 제비가 온다는 삼짇날에 송편을 먹는다고 했다. 다산 정약용도 봄에 송편을 빚는다는 시를 지었다. 봄은 계절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농경시대에는 일을 시작하는 계절이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일을 하자는 뜻으로 송편을 만들어 먹은 것이다. <본지 회장>

제2회 '교통안전체험수기·UCC·캐릭터 공모전'

구로경찰서, 10월 6일까지 이메일 접수

구로경찰서는 시민중심의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서울경찰청, 서울시, 도로공단 등과 함께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교통안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체험수기 △UCC(창작품) △캐릭터(전자, 창작품)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거주 내·외국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교통 관련 경험 수기 작성 △교통안전 광고, 교육자료 등 내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작 △교통경찰 업무 관련 쉽고 친근하게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 창작작품 등이다.

오는 10월 6일(수)까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공모전 수상작은 서울청 누리집, 네이버카페 등에 활용되고, 캐릭터는 교통안전 홍보물로 제작되

어 교통안전교육 또는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60세이상 취업 원하시면 전화하세요 (경비/청소등 전문 무료 알선 기관)

100세 시대... 아직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과연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까?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는 60세 이상 구직을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취업상담 및 구직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준비서류 : 이력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월~금 09:00~17:00)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

구로구지회 (신도림역 2번출구, 02)852-459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8길39, 1층

구로오늘신문 구독 및 광고문의 010-9096-1144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구로구니눔네트워크

구로사랑 희망이음 캠페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지역사회 기부자와 취약계층 주민을 연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지역맞춤형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015-176590-13-5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문의 02-867-1695 구로희망복지재단

구로구 '제6회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수상

사회갈등해소 부문 단체상...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수상

"참여민주주의 실현·상호문화도시 정책·세대 갈등 해소"

구로구가 '제6회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에서 사회갈등해소 부문 단체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은 사회 갈등과 대립,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공동체의 화합과 사회 통합을 진작하기 위해 지역갈등 해소에 기여한 자치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세계일보가 주관한다.

사회갈등해소, 통일준비 2개 부문에서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사회갈등해소 부문에서는 구로구를 포함한 3개 자치단체와 개인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로구는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힘써왔다. 지난 2019년부터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민과 관이 함께 준비하는 구로마을 민주주의 축제 '공감 GURU'를 개최해오고 있다. 구로의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마을 민주주의 비전을 모색하는 '공감 GURU'는 기획부터 진행·참여 등 모든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한다.

내·외국인 주민 모두가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로구가 '제6회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에서 사회갈등해소 부문 단체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사진은 이성 구청장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만들기 위한 정책들도 펼치고 있다. 2018년 지역 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원스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통합지원센터도 개소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문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민·관·학 정책네트워크인 '다가치 多누리 거버넌스'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19년 8월에는 유럽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주

민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구로구는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어려움 해결에도 힘쓰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5월 천왕역 지하 1층에 일자리 토탈플랫폼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을 개관하고 취업 준비부터 직무 전문성 숙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심사위원들은 구로구가 참여민주주의 실현, 내·외국인 주민 화합, 세대 갈등 해소 등을 통해 지역 내 갈등 해소에 적극 노력해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채홍길 기자>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 교육안전망 체제 구축

협치형 학생 통합지원 '교육후견인제' 본격 시동

'동단위 교육안전망 협의회' 통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 교육 복지 제공

구로구가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코로나19 장기화, 생활환경 등의 차이로 발생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후견인제'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후견인제'는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동단위 교육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지속적인 만남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구로구는 지난 8월 교육후견인



지난 27일 열린 협치형 학생 통합지원 협약식에서 이성 구청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책공모에서 '협치형 학생 통합 지원 참여 자치구'로 선정됐으며, 구로·천왕·개봉·고척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기관 3곳(학교너머 더큰학교, 천왕작은도서관협의회, 그래그래작은도서관)이 '동단위 교육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교육후견인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열린 이번 협치형 학생 통합지원 협약식은 이성 구청장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번 공모에 선정된 5개 자치구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상익 교육지원과장은 "교육후견인제 사업을 통해 '한 아이도 빠짐없이 온전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교육후견인과 마을기관 등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성심병원·한국예총 구로구지회 건강검진 등 '건강복지업무 협약식' 체결



구로성심병원과 한국예총 구로구지회가 이성 구청장과 함께 지난 17일 오후 2시 구청 3층 르네상스홀에서 건강복지업무에 관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

구로성심병원(원장 허정민)과 한국예총 구로구지회(회장 장동석)는 건강복지업무에 관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구청 3층 르네상스홀에서 이성 구청장을 비롯 허정민 구로성심병원장, 장동석 구로구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협약식에서 구로성심병원은 한국예총 구로구지회 회원(가족)의 건강검진 연계치료 서비스 등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서명했다.

먼저 한국예총 구로구지회 소속 된 회원(가족)이 VIP 종합검사시 검진료 특별우대비로 남녀 공동 70% 선에서 할인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간 기능검사를 비롯 갑상선검사, 당뇨검사, 혈장검사, 심폐기능검사, 소화기검사, 심혈 검사, 상·하복부초음파 검사 등 총 27종에 대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추가검사시 추가금액이 발생할 경우 수면비와 대장내시경을 받게 될 경우에도 약간의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또

한, 회원(가족) 사망시 장례비로 전체비용 40~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각종 상호회 이용시는 불가하며, 기타 독감을 비롯 대상포진 폐렴구균 등 예방 접종 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예총 구로구지회는 (사)구로문인협회를 비롯 미술협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서예가협회, 캘리그래피, 한목회 등 약 536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다.

이날 MOU 체결에 앞서 장동석 회장은 "문화의 불모지였던 구로구에 구로성심병원과 같은 큰 종합병원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상호 협력체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 "앞으로 구청도 구로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최우수지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예총 구로구지회 회원(가족)이 건강복지에 대해 신청할시 각 분과회장 서명과 함께 확인 절차를 밟아 신청하면 되고, 신청접수는 구로성심병원 관리과 길병철 과장(010-5325-4111)에게 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방과 후 돌봄시설과 경로당이 한곳에"

관내 17호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오류2동 동보아파트 단지내

구로구가 관내 17번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오픈했다.

구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오류2동에 돌봄시설과 경로당을 함께 갖춘 '오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최근 개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실시하는 초등학교 상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로구는 오정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안전진단,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다. 건축 설계는 구로구 마을건축가 정교선 씨가 맡았다.

오류2동 오리로13가길 30 동보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지상 1층)에 자리 잡은 '오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 공간 90㎡, 경로당 90㎡ 등 총면적 180.87㎡ 규모로 조성됐다. 경로당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오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학기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한만수 기자>

관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4,000명도 넘었다

하루 신규 80명 등 누적 4,144명... 25개구 중 8번째

서울 확진자 9만8,497명-사망자 635명

수도권을 비롯, 전국이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석달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3,273명으로 최다 기록을 세우더니 매일 2천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로 관내에서도 중국 동포 등 외국인 건설 일용근로자 등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80명씩 쏟아져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4천명이 넘는 것은 지난 9월6일 3천명을 기록하고 21일만에 1천여명이 늘어 4천명이 넘어선 것이다.

27일 오전 10시 기자가 찾은 구로보건소 선별진료소와 구로역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외국 건설노동자와 시민들이 긴 줄을 형성하고 있었다.

28일 현재 관내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에 비해 382여명이 늘어나 누적 4,144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가 지난 21일 51명, 22일 34명, 23일 55명, 24일 80명, 25일 66명, 26일 55명, 27일 41명을 기록하는 등 일주일 전에 비해 모두



수도권을 비롯, 전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석달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로 관내에서도 신규 확진자 급증해 누적 확진자가 4,144명을 기록하고 있다.(사진은 27일 오전 구로보건소 선별진료소)

382명이 늘어나 28일 현재 누적 4,144명을 기록했다. 하루에 평균 55명 끝이다.

사망자는 17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1명 늘었고 3,100명이 완치되면, 1,025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1,143명, 해외입국자 232명 등 모두 1,375명이다. 누적 확진자수로 보면 최근 부쩍 늘어난 영향으로 25개구 중 8번째로 상승했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28일 현재 모두 9만8,497명으로 사망자는 635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남구가 제일

많은 6,881명 ▲송파구도 6,288명으로 6천명을 넘어섰고 ▲관악구 5,370명 ▲영등포구 4,419명 ▲강서구 4,406명 ▲서초구 4,265명 ▲은평구 4,237명 ▲구로구 4,144명 ▲동작구 4,092명 ▲노원구 3,903명 ▲성북구 3,738명 ▲강동구 3,731명 ▲중랑구 3,704명 ▲마포구 3,680 ▲광진구 3,450명 ▲동대문구 3,421명 ▲양천구 3,264명 ▲성동구 2,814명 ▲용산구 2,681명 ▲서대문구 2,661명 ▲강북구 2,582명 ▲도봉구 2,570명 ▲금천구 2,033명 ▲중구 1,672명 ▲종로구 1,594명 순이다. <채홍길 기자>

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 백신 접종

10월부터 60세 이상-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부스터샷'

만 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0월 18일부터 시작한다. 12~17세는 연령대별로 나눠 10월 5일부터, 임신부는 8일부터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감염예방 효과 보강을 위한 '부스터샷'(접종완료 후 추가 접종)도 10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우선 대상으로 접종에 나선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우선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

12~17세 접종대상자는 총 277만여명이다. 이들은 오는 10월 5일부터 연령대를 구분해 사전예약을 신청, 접종받을 수 있다. 16~17세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약을 한 뒤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을 받는다. 12~15세의 사전예약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이들은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백신을 맞는다.

소아·청소년은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1·2차 접종간격은 3주로 본인 또는 대리예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전예약 후 보호자(법정

대리인) 동의를 기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게 된다.

임신부에 대한 백신접종도 시행한다. 임신부는 10월 8일부터 백신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예방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10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들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부스터샷도 10월부터 시행한다. 부스터샷은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한다. 부스터샷 백신 종류는 화이자·모더나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상반기 접종 시행방식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자체접종을 통해 부스터샷을 맞는다.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은 10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예약을 통해 희망하는 접종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10월 2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0월 부스터샷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노인, 노양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이용·입소자와 종사자다.

정부는 향후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부스터샷 세부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유권 기자>

주민 1차 백신접종률 74.9%

31만8,026명 접종... 2차도 18만6,355명 마쳐 43.9%

백신 부작용 신고도 늘어 사망 6건 등 누적 1,643건

구로구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구로구민회관과 오류문화센터,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8일 0시 현재 인구 대비 접종률이 1차 74.9%, 2차(접종 완료) 43.9%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로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31만8,026명으로, 관내 전체 인구 내·외국인 포함 42만4,582명(2021년 6월 기준)의 74.9%다.

1회 접종만으로 끝나는 안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1·2차 접종 수 치에 모두 반영되어, 2차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총 18만6,355명으로 인구 대비 43.9%다.

서울시 평균은 1차 접종률 76.0%와 2차 46.7%다.

이와 함께 접종 부작용 신고도 계속 늘어나 지난 3월 첫 백신 접종 이후 관내 백신 부작용 건수는 사망 6건 포함 모두 1,643건으로 집계됐다.

구로보건소가 밝힌 백신 부작용 신고 1,643건을 증상별로 보면 28일 현재 △사망자는 지난주와 같은 6명 △중증인 아나필락시스 11건 △기타 9건 △경미 증상 1,617건으로 집계 됐다.

<채홍길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 접종

어린이·임신부·어르신·중증장애인·취약계층 등 대상

구로구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2008.1.1~2021.8.31 출생)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는 내년 4월 말까지 접종 가능하다.(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10월 1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접종 가능)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2.1.1 이전 출생)의 경우 만 65~69세는 10월 21일부터, 만 70~74세는 10월 18일부터, 만 7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접종할 수 있다.

한편 만 14~64세(1957.1.1~2007.12.31 출생) 중 의료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10월 26일부터 12월 말까지 접종하면 된다.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종 시, 신분증, 임신부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을 지참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동시 진행됨에 따라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연령대별로 정해진 기간에 인플루엔자 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사전예약 기간, 예약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ncvr.kdca.go.kr), 콜센터(1339, 853-3072~6), 지정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구청 지역보건과 860-3361. <한만수 기자>

고려대의료원 첫 백신혁신센터장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교수 임명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고려대 의과대학 초대 백신혁신센터장에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사진)가 임명됐다고 최근 밝혔다. 임기는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김우주 센터장은 감염병 분야 전문가로 2003년 사스, 2004~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

스 등 국내 감염병이 유행할 때 정부에 방역·대응정책을 자문하는 활동을 해왔다. 백신혁신센터는 고려대의료원이 백신·치료제와 관련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형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민간 백신개발센터다.

이번 백신혁신센터 설립과 운영



에는 지난 달 31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고려대의료원에 쾌척한 100억원이 활용된다. 고려대의료원은 정 명예회장의 뜻을 기리고 기부자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백신혁신센터를 '정몽구 백신혁신센터'로 명명했다. <김유권 기자>

'집으로 배달' 콘서트 '일상으로의 초대' 행사

10월 23일 신도림 오페라하우스서 마술, 아카펠라 공연 펼쳐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집으로 배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집으로 배달' 콘서트는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부제 하에 10월 23일 야외무대인 신도림 오페라하우스(신도림역 3번 출구)에서 진행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전예약제와 거리두기 좌석제를 실시하고 발열체크,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계획이다.

공연은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후 1시에는 정병구 마술사의 S2 매직 콘서트가, 오후 3시 30분에는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의 공연이 펼쳐진다. '엑시트'는 2009년 한국 아카펠라대회 대상을, 2012년 중국 심천에서 주최하는 국제 아카펠라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보컬 밴드다.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는 10월 23일 '집으로 배달' 콘서트를 개최한다. '집으로 배달' 콘서트는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부제 하에 야외무대인 신도림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된다.

관람 신청을 원하는 이는 이달 28일 오후 8시부터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부는 50명(1인 4매), 2부는 100명(1인 2매)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관람료는 무료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 2월 영상문화 팬미팅 이벤트를 겸한 집으로 배달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연도 현장을 찾지 못한 관객을 위해 구로G페스티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단, 이번 집으로 배달 콘서트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온라인 콘서트로 전환 될 수 있다.

이재순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로 지친 주민과 예술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기자〉

초대시

가을이 오면 고향가네

청명 홍춘표



가을은 깊어 저을 부르네
고향에 가을 깊어 저을 오는가?
만색홍엽이 창공 오르네
고향에 늦가을 바람 부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새 따라
내 마음 시름하는 가을 밤에
친구야! 네 얼굴이 눈가에 앉아
저 별들과 애항가 부르며
가을이 오면 구름타고 고향가네

가을은 깊어 향수 부르네
고향에 내 마음 가고 있는가?
나도 낙엽되어 하늘가네
고향에 늦가을은 깊어 가는가?
섬진강 도도한 금물결 따라
내 마음 서성이는 가을 밤에
친구야! 네 음성이 귓전에 스쳐
저 보름달과 망향가 부르며
가을이 오면 바람타고 고향가네

- 1943년 전북 임실 출생. 시인, 수필가, 아동문학가
- 대불대 대학원 행정학박사
- 옥조근정훈장, 제6대 구로구의회 의장 역임
-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역임
- 현 마포경우회 회장, 구로문화원 부원장.

구로미술협회 '제30회 구로미술전' 개최

10월 3일까지 구로구민회관 1층 갤러리 구루지에서



구로미술협회 '제30회 구로미술전' 개막식이 지난 27일 오후 5시 구로구민회관 1층 갤러리 구루지에서 이계명 구로문화원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장동석 한국예총 구로구지회 회장, 오현철 구로미술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구로미술협회 '제30회 구로미술전' 개막식이 지난 27일 오후 5시 구로구민회관 1층 갤러리 구루지에서 이계명 구로문화원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장동석 한국예총 구로구지회 회장, 오현철 구로미술협회 회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미술전은 오는 10월 3일까지 구로미술협회 소속 작가들이 참가 'Nostalgia(No.8)' (오현철 작가) '첫 날밤' (신삼일 작가) '돌아보다-산' (류지선 작가) '관계(關係)' (정근영 작가) 등 50여점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제6대 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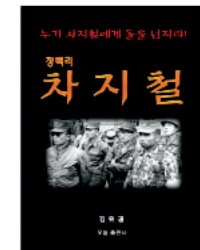
미술협회 회장을 지낸 류지선 회장이 이계명 구로문화원장으로부터 구로예술인상을 받았다.

미술전 관람을 원하는 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작품 관람해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 정시마다 진행된

다. (오후 12시, 1시 제외)

오현철 구로미술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이번 구로미술전 관람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로문화재단 2029-1700, 1701. 〈채홍길 기자〉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육판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문의 : 010-9096-1144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